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제836호

향군, 정기총회 개최… 정부 방역 지침 준수

시차소집 총회 권한대행 이사회 · 온라인 투표시스템 등
코로나19 상황 모범 사례 제시…성공적 개최, 위상 높여

경남 · 울산향군은 2월 16일 시차소집으로 개선총회를 개최하고 손도수 회장을 연임시켰다.

향군은 1월 한 달 동안 2020 시 군 구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2월2일 대전 충남 향군을 시작으로 3월12일까지 시 도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총회 실시 방안을 고민해 왔던 향군은 지난해 12월21일 이사회를 통해 '원격출석 및 결의권 행사' 법규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지침 준수한 가운데 기존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되 시차소집 투표 등 방안 마련 ▶총회 권한대행 이사회 개최 ▶원격출석 및 결의권 행사방법 적용 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 등 3가지 방법을 마련해 각급회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1월중 실시된 시 군 구 향군 총회는 223개회 모두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 19로 제한된 상황 아래 향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시 도회 총회도 2월2일 대전 충남 향군에 이어 2월16일 시차소집 방법을 택해 실시한 경남 울산 향군, 2월18 대구, 2월19일 서울 · 충북, 2월25일 광주 전남 · 경북, 2월26일 강원, 3월3일 제주, 3월8일 전북, 3월11일 인천 · 경기, 3월12일 부산 향군을 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 19 시국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총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여타 단체들에게 모범적 사례를 보여 주었다.

향군 정기총회는 정관 변경, 임원 선출 및 해임, 지역 대표 선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기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1안보교수 선발…안보교육 선도

국방 · 안보분야 인재 발굴, 교육의 질 높여

2021년도 향군 안보교수 29명(만 60세 이하 일반교수 21명, 만 61세~70세 명예교수 8명)이 선발됐다.

향군은 코로나 19 3차 유행에 따른 집합 금지 등으로 계속 연기되었던 2차 연구강의 실기평가를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1월27일~29일, 2월4일~5일 실시하고 총 42명(일반교수 32명, 명예교수 10명)의 지원자 중 일반교수 21명과 명예교수 8명을 최종 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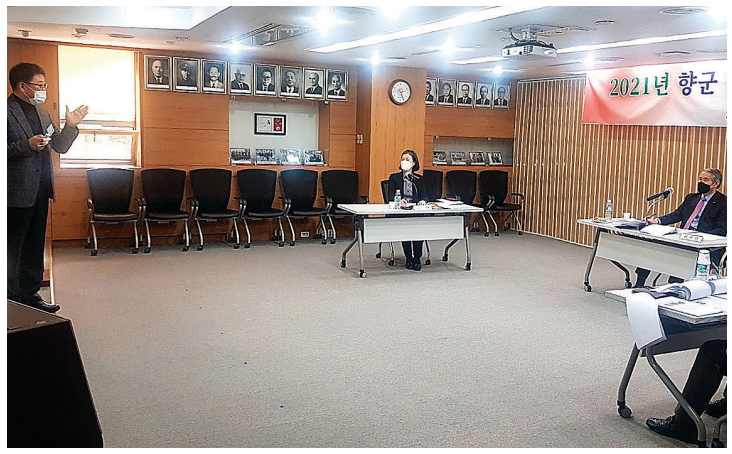
안보교수 선발을 주관한 이용석 호국안보국장은 "향군을 대표하는 유능한 안보전문가 확보를 위해 대학의 안보교수 및 연구기관의 안보전문가 위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교육을 선도할 국방 · 안보분야 석 · 박사 출신의 강의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했고 처음으로 여성 안보교수가 선발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 풀을 확보하게 되어 대국민 안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선발된 향군 안보교수는 3월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위촉식과 워크숍을 시행할 예정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보교수 명단

〈일반교수〉
강동화, 김영택, 김기홍, 나태종, 박동순, 방호엽, 손영국, 유선영, 윤병호, 이성춘, 이영석, 이준성, 이준희, 임유정, 장형영, 전광준, 주호균, 주효덕, 진기환, 최윤철, 황기석

〈명예교수〉
김재용, 김일용, 김재철, 노용균, 이현오, 정구왕, 정운채, 허태응



신임 · 시군구 회장 프로필 ····· 3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 이란?
LH가 사전 매입한 주택을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접수기간 : 2021. 1. 4 ~ 3. 31
■ 대 상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무주택자
■ 임대조건 : 2년단위 계약 (20년까지 가능)
■ 자격조건 /신청방법 : 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
■ 접수처 : 재향군인회 경영본부
e-mail : kva0925@daum.net
FAX : 02-461-8645
■ 문의 : 02-416-09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 : www.korva.or.kr

이달의 안보칼럼

8차 노동당 대회로 드러난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

문 성 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북한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과 이민위천(以民爲天)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군사 업적을 과시하고, 자신은 총비서 자리에 올라 김일성, 김정일 수준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미국에 대해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군사역량 발전에 집중할 것이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임을 천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연습 중지, 첨단전력 도입 중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방력 강화를 통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자"면서 대남무력적화전략이 불변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핵 개발 집착, 대남적화전략에 기인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력 강화 업적을 집중부각했다. 핵기술의 고도화, 소형화 및 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기화를 달성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수소탄 개발, 전 지구권 타격 로켓트, 초대형 방사포, 첨단 전술핵무기 등을 완성했다고 자랑했다.

최초로 핵잠수함 개발도 공식화하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도 재확인했다. 중국 칭화대 자오퉁 교수는 "향후, 북한이 전략과 전술 2중 핵 역량으로 미국의 군사간섭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키워 최종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무력적화) 민족통일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래 국부적인 재래식 충돌과정에서 전술핵무기를 선제 사용해 전장의 열세를 반전시키거나 적(미국 등)을 심리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남적화전략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기만해왔다.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주둔이며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 전쟁연습이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러기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불법이며 핵 포기 요구 전에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먼저 포기하라 요구한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한다면 핵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미국을 남한에서 내쫓아 핵으로 위협하여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심산이다.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과 접촉의 징검다리로 남한을 활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적 실익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나아가 한미공조와 동맹을 이간하여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하노이 노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남북관계 발전 운운도 최근 우리에게 한미연합 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요구한 것 또한 대남적화전략의 불순한 의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하여, 북 비핵화 힘 모아야

우리의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마침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그동안 중단, 축소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나토식 핵 공유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강화도 늦출 수 없다. 우리 군의 자위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시도는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대 경제위기에 처한 현재 북한의 상황은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공고한 한미 대북공조로 촘촘하게 대북압박을 이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요구해야 한다. 핵을 안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핵을 내려놓고 살 것인가를 김정은이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북한 핵을 완전하게 없애지 않고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도,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도 불가하다.

안보전망대

북 유상리 미사일 기지 "활동 지속 중"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2월18일(현지시간) "북한이 화성-15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보관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유상리 미사일 기지에서 소규모 활동을 지속 중"이라고 북한 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5일과 2월7일 유상리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5월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했을 때 새 건물이 완공되거나 일부 건물은 철거되는 등 변화가 포착됐다고 보고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학생 24% "통일 불필요"

통일부와 교육부는 1월9일 학생과 교사들의 평화 · 통일 인식, 학교통일교육 현황 등을 온라인 조사한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일부터 30일까지 현대 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670개 초 · 중 · 고교 학생과 교사, 관리자 등 73,851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4%로 2019년 55.5% 대비 6.9%p 상승하였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위협 해소'(28.4%)가 '같은 민족'(2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2%로 2018년 13.7%, 2019년 19.4%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 북한 해커 3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2월17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전창혁, 김일, 박진혁 등 해커 3명을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자행,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 악성 암호화폐 앱 개발 · 배포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 관련, 사기를 벌였으며, 2014년 11월 소니영화사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공격 자행,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2.0을 만드는 등 랜섬웨어 공격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타이완, 멕시코, 몰타, 아프리카 등의 은행에서 12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 시도했고, 2017년 12월 슬로베니아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7천500만 달러 등 수많은 회사를 겨냥해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덧붙였다.

축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역 향군의 리더, 조직의 최 첨병 신임 시 군 구 회장

■서울 강동구회

회장 **황병국**
(예 해병중위)

■인천 옹진군회

회장 **최성일**
(예 해병병장)

■강원 홍천군회

회장 **이효식**
(예 육군이병)

■전남 영광군회

회장 **심기동**
(예 육군병장)

■서울 강서구회

회장 **한명현**
(예 육군대령)

■경기 김포시회

회장 **이영길**
(예 육군병장)

■충북 진천군회

회장 **이순재**
(예 해병병장)

■전남 함평군회

회장 **장운식**
(예 육군병장)

■서울 관악구회

회장 **김사연**
(예 육군대령)

■경기 남양주시회

회장 **서동석**
(예 해병병장)

■충북 증평군회

회장 **윤해명**
(예 해병하사)

■전남 화순군회

회장 **민경준**
(예 육군병장)

■서울 송파구회

회장 **이기정**
(예 공군병장)

■경기 안양시회

회장 **서홍근**
(예 육군중령)

■충남 유성구회

회장 **윤여원**
(예 육군일병)

■경북 울진군회

회장 **주동근**
(예 해병병장)

■서울 용산구회

회장 **김재을**
(예 육군중령)

■강원 고성군회

회장 **최근성**
(예 육군병장)

■전북 임실군회

회장 **김영석**
(예 육군병장)

■경남 의령군회

회장 **이동기**
(예 해병병장)

■부산 동래 연제구회

회장 **박세정**
(예 육군중위)

■강원 양양군회

회장 **전진찬**
(예 육군병장)

■전북 전주시회

회장 **김용덕**
(예 육군이병)

■LG전자 직장연합분회

회장 **김정일**
(예 육군중령)

■대구 서구회

회장 **공동식**
(예 해병병장)

■강원 영월군회

회장 **이효식**
(예 육군중위)

■광주 북구회

회장 **김상훈**
(예 해병하사)

※ 신임 시 도 회장 및 해외지회장 프로필을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역사 바로알기 ㉘

향군 정책개발기구, 안보전략연구원의 변천 과정

현재의 안보전략연구원은 1989년 발족된 안보연구소가 전신이다. 1980년대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화야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특히 안보연구소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열풍을 타고 좌경·용경세력들이 준동하게 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향군의 정책개발기구의 하나로 기존의 특별안보계도위원회와 안보전문위원실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북한 도발 대응 향군의 싱크탱크 기능 수행

연구소의 임무는 ▲국가안보와 향군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안보교육 및 강연 활동 ▲안보전문지 및 각종 교육자료 발간 ▲국가안보에 대한 정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향군의 대외홍보 및 협력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연구소의 구성은 사무총장 밑에 연구소장을 두고 안보국장이 겸임하였으며 행정실,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등 4개실 총 28명으로 편성하였다. 그중 안보위원 10명, 안보전문위원 11명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향군 정책개발 및 연구, 시국관련 사안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대외 논술활동 전개, 안보교육 및 강연, 안보관련 학술회의 및 토론회 적극 참여, 대언론 기고 등 활발한 안보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본부 구조조정에 따라 안보관련 부서를 통폐합 함으로서 안보정책본부가 신설되고 연구소의 기능을 흡수하였다. 이어 1998년 다시 본부 직제개편으로 안보정책본부가 해체되고 안보정책국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년 3월 안보정책국이 호국안보국으로 개칭되면서 연구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 후 국민의 정부에서 대북포용 정책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편승하여 안보현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이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0년 7월 안보연구소를 새롭게 출범시켜 향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소의 인력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전문인력으로 확충하고 2급 이상으로 대우하는 등 연구소의 능력 수준을 대폭 올렸다. 또 업무 범위도 국내 안보문제에서 국내외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내부활동 보다는 대외활동에 치중하였고 신문기고, 인터뷰, 방송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어 2017년 8월 현재 김진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구성된 향군발전위원회에서 시대상황에 맞게 안보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2017년 12월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방정책, 한미동맹 등 4개 분과 두고 전작권, 한일군사갈등 등 현안 대응

안보전략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북한문제, 한미동맹, 국방정책, 외교안보 등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주요 안보이슈와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받고 있고 연구자료를 모아 월 1회 안보전략논단, 반기 1회 향군 연구학술지를 발간하고 격월제로 연구논문 발표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환수, 한일군사갈등 등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군 안보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대부터 내려온 향군의 재정위기 극복 등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조직을 슬림화 하고 업무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군의 안보활동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홍보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협업 기관 '향군' 지정

국방부, 그간 성과 높이 평가…향군, "국가정책지원 앞장설 것"

국방부가 추진 중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3년째를 맞는다. 그간 향군은 매년 각급회에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읍 면 동회까지 일사분란하게 본 사업을 지원해 왔다.

향군은 지난해에만 총 21건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와 함께 7건의 참전자 전사증언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각 지역별 6·25전사자 유해발굴부대의 개토식 행사에 참여하여 위문 및 격려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아울러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인쇄한 포스터와 리플렛 등 홍보물을 각급회에 시달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토록 했으며 각급회에서도 밴드 등 SNS와 플래카드 등 여건에 맞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처럼 향군은 회원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고취시키고 해당 유가족들이 시료를 채취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정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는 국방부에서 향군을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에 군 관련 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민간협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군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고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쓸쓸히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이다.

2018년 11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향군을 방문하여 논의 후 협조를 요청했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올해로 만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현재 발굴해 놓은 유해가 있는 반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향군은 올해 각급회별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및 증언을 포함여여 10건 이상의 실적이 나오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단신

2020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20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8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했다.

특히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다국어 요약본을 올해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

국방부는 점차 복잡화·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재난대응」공통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사항', '위기(재난)관리체계', '재난상황별 대응절차', '참고자료' 등 4장으로 구성되었고 재난 단계별로 구체적 대응 및 조치사항을 실제 업무순서대로 기술하여 신규 직원도 재난대응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 지원을 위하여 운용중인 '재난대응부대'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고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군의 가용한 자산을 총괄하여 지자체·민간기관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복지시설 방문, 원생 위문

국방부는 2월9일 설 명절을 맞아 용산구내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영락 애니아의 집을 찾아 위문했다.

국방부는 매년 설,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우리 농축산물 위주의 위문품을 구매해 전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국군

실종자 수색, 제설, 헌혈 등 다양한 봉사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멧돼지대대는 제주도 훈련 중이었던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민간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하자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 6일간 31㎞에 달하는 지역을 수색하여 실종자 7명 중 3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냈다. 또 대대원들은 훈련장 인근 지역에 폭설이 내리자 도로와 주요 관광지 등에서 신속한 제설작전도 실시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과 진행한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대대원 70여 명이 참가했다. 제주도훈련은 특전사 예하 대대들이 일정 주기로 부대 단결력과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술훈련, 주특기훈련, 체력단련 등을 말한다.

해군1함대 '사랑의 연탄 배달'

해군1함대사령부 주임 원사·상사단이 1월18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 등 1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배달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서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평소 연탄 수급이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은 해군 장병들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다. 장병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군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대민지원…조류독감 확산 막아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이 코로나19에 이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주민을 돕고,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16전비는 부대 인근 문경시 농암면에서 1월12일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월20일부터 이 일대에서 '방역 대민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가 인원들의 마스크 착용, 외부인원 접촉 최소화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며, K10 제독차를 이용해 질병 발생지 인근 지역을 방역했다.

해병대2사단 생명 나눔 앞장

해병대2사단 2527부대와 3295부대가 지난해 경기도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헌혈장려 우수부대로 선정돼 경기도의회의장 부대표창을 받았다. 2527부대는 지난해 7번의 헌혈 운동을 실시한 결과 총 470여 장병들이 동참해 약 190ℓ의 혈액을 전달했다. 3295부대도 5번의 헌혈운동을 전개해 400여 장병이 약 160ℓ의 혈액을 모았다. 이 같은 동참 속에 2사단은 지난해 총 7300여 장병의 참여로 총 2900ℓ의 혈액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참전용사 잊지 않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에 감사”

국가보훈처 2차 마스크 지원 마무리, 유엔참전용사 호평 이어져

국가보훈처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달려온 22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해외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방역 마스크 지원을 마무리했다.

방역 마스크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하여 현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근까지 전달했다.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한 마스크는 총 200만장으로 전체 유엔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장, 영국 등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장을 전달했다.

또한 해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98세, 미국거주), 오성규(96세, 일본거주), 김창석(94세, 미국거주) 선생 및 중국 · 러시아 등 15개국 유족 등 550여명에게도 마스크 3만여장을 지원했다.

유엔참전용사들은 이번 2차 마스크 지원에 대해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하여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국무총리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 “70년전 자신들이 도와주었던 한국이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고, 한국에 도움을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 대한민국에 감사드린다”,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국의 보훈외교에 매우 감사하며,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받아 사용할 때 마다 한국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많은 감사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2월 6.25전쟁영웅, 윌리엄 스피크먼 묘역 참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2월19일 부산시 남구 유엔 기념공원과 유엔 평화기념관을 방문하여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참전용사 묘역을 찾아가 헌화 및 묵념을 한 뒤 묘역을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했다.

보훈단신

월간 소식지 ‘다시 웃는 제대군인’ 웹진 형태로 전면 개편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취 · 창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시 웃는 제대군인’ 월간 소식지를 전자잡지(웹진, www.vnet-magazine.kr)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시 웃는 제대군인’ 소식지는 2005년에 창간된 것으로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편으로 제대군인들에게 보훈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그분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온라인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다시 웃는 제대군인’ 전자잡지를 널리 알리고 제대군인의 참여와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군 시절 추억담을 소개하는 ‘라떼 이야기’ 등 홍보 행사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진행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날’ 첫 기념식 직원 사기 진작, 센터 최초 설립일로 정해

부산보훈청은 2월10일 ‘제1회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날’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 가입된 9만여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11월 권율정 부산보훈청장의 필요성 제기로 제정됐으며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최초 설립일(2004년 2월 11일)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날’로 정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실시된 기념식은 센터 설립 추진경과 보고, 우수 직원 포상,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6 · 25참전 유엔참전용사 헌신, 사진으로 보훈처, 사진작가 라미 현에 감사패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6 · 25 전쟁 유엔참전용사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제작해 무료로 전달하고 있는 라미 현(본명 현효제) 사진작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013년부터 7년 동안 현역 국군장병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왔던 라미 현 작가는 2017년부터 6 · 25전쟁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참전용사를 웃게 만들고, 참전용사를 기억하게 만들자(Let them smile, Let them be remembered)’라는 주제를 정하고 ‘솔저 케이더블유브이(Soldier KWV)’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 유엔참전국을 방문해 1,400여 명의 참전용사를 만나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 액자를 전달해 많은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한화그룹에 감사패

‘서해수호 55용사’ 유가족 취업 지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2월18일 서울시 중구 한화빌딩을 방문해 ‘서해수호의 날’ 6주기를 맞아 ‘서해수호 55용사’ 유가족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 향상에 기여한 한화그룹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기념식과 관련 행사 등이 열린다.

‘세무’ 주제 2021년 첫 온라인 창업워크숍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가 2월5일 창업 주요분야 중 하나인 ‘창업 세무’를 주제로 올해 첫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세무의 기초지식에서부터 사업자등록 절차 등 복잡한 제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20대에서 70대까지 100여 명이 넘는 남녀 제대군인이 수강했다.

제대군인 출신으로 강사로 참여한 임재선 민우세무법인 대표는 사업자가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개정된 세법과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전수했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 △법인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선택에 따른 장단점과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세무조사 등 실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으며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통해 참여한 많은 제대군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되는 많은 노하우와 콘텐츠를 워크숍을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대군인 회원과 그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②

안보 메카 자부심으로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조직

김 윤 호
부산시 향군회장

부산은 해상안보의 최전선으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고 국가자강을 위해 수신사를 파견하기도 했던 역사의 현장이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 유해가 안장된 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창설되었으니 향군의 고향기도 하다. 이처럼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안보의 성지임에 틀림없다.

안보와 역사의 현장 부산 6.25전쟁 중 향군도 창설

부산시 향군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인 과제인 조직의 활성화, 재정위기 극복, 청소년 안보교육 강화, 참전유공자 보훈지원 등 향군 위상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회장취임 후 열악한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운영비성 보조금 확보와 중장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시회와 부산진구회가 통합하여 노후화된 진구회관 자리에 통합 신축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과 실무자에게 수시로 접촉 하여 재정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현재 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호국안보활동의 내실화이다. 일반 국민들이 "향군"하면 연상되는 모습은 예비역 친목단체, 정치적 보수단체, 심심찮게 보도되는 사업비리 등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 향군은 향군 본연의 목적인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먼저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상황 하에 시민, 학생, 회원의 국민 안보계도 활동이 기존 대면 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고, SNS 매체를 통해 수시로 본회의 안보교육자료 및 강조사항을 즉각 전파하여 업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회원 가입문제이다. 65세 이상의 고령회원들 위주의 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젊은 회원 확보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향군의 정체성 소개, 회원 가입 시 혜택과 보상(정회원 유치자에 대한 혜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관련단체장의 포상 등),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 향군은 아나운서, 변호사, 영화감독,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주축이 되어 향군행사 및 참전유공자, 참전국 다문화 가정 위문,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향군위상 확립과 봉사단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은 물론 향군회원의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한 병원, 정비업체를 포함 총25개소에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부산 향군의 미래는 보훈 보훈이 곧 안보

넷째 국가유공자에 보은활동이다. 부산향군의 미래는 보훈과 연결되며 보훈은 번영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분들께 국가가 그 공훈에 보답하는 일로 나라를 되찾고(독립), 나라를 지키며(호국), 나라를 바로세운(민주유공자)일에 보답해야 함으로 향군의 존재 목적도 이에 부합하는 행위가 이루어 질 때 더욱 빛이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 및 참전유공자의 보훈은 당연한 일이기에 "참전 호국 영웅 위로 기념공연, 6·25 참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보훈병원 위문, 참전 국가 유공자 보은활동 "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산시 향군은 안보의 메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

용인시 향군, 용인시장 표창장 받아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지역발전 기여

경기도 용인시 향군(회장 김제진) 김학만 원삼면 회장, 정장화 구갈동 회장, 김학영 이사, 허미옥·이미숙 여성회 이사 등 5명이 1월29일 용인시청에서 향군 발전 및 지역안보의식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백군기 용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하는 주춧돌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용인시 향군은 그간 매년 시민들의 안보의식과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담그기, 무더위 쉼터 점검, 환경 정화, 수혜지역복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왔다.

김제진 용인시 향군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와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향군, 보훈지청장과 보훈사업 설명회

인천 보훈지청, "향군이 보훈단체 협력 이끌어 달라"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은 2월8일을 향군회관을 찾은 박현숙 인천시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올해 추진예정인 주요보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보훈지청장은 이날 올해 주요 보훈사업 및 행사에 인천향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13개 인천시 보훈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37사 1대대 장병 위문

충북 청주시 향군, 지속 후원 약속

충북 청주시 향군(회장 채수민)은 2월23일 공군사관학교와 37사단 1대대를 방문,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쌀국수 125박스와 마스크 1만장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미 동부 향군, 한인업체 지킴이...순찰 봉사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은 2월14일 애난데일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지역에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권총강도 및 절도사건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시작했다.

순찰시간은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로 3~4명이 한 팀이 되어 예촌, 낙원식당, 한강, 설악가든, 중화원, 장원, 가보자 등 한인업소를 집중 순찰한다.

김인철 회장은 "강도나 절도범들을 멀리 쫓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주 임무"라며 "이들을 쫓기 위해 호루라기, 손전등, 사이렌 소리가 나는 핸드 마이크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태국 향군, 한국전 참전용사 가정 위문

설 명절 맞아 '한국의 정' 전해 … 보은 실천

태국 향군은 2월11일 한국의 설을 맞아 태국해군 부사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고 쩜 옹쁘라셋씨 가족을 찾아 미망인과 딸에게 소정의 격려금과 라면과 김치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한국의 정을 전했다.

호주 교민 황백선 옹 호주 국민훈장 수상

호주 향군 발족 참여 …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도

호주 향군 발족에 공헌한 예)육군 중령 황백선 옹(88세)이 교민 최초로 호주 국민훈장 수장자로 선정됐다. 호주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인 1월26일 국민훈장 수훈자를 발표하고 오는 4월말에서 5월초 사이에 총리관저에서 수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동포 중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황백선 고문이 유일하다.

황 고문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 1호 헬기 조종사였다. 1970년 중령으로 예편하고 호주 항공사에어 패스트 한국지사에 입사한 뒤 1972년 호주로 이민을 갔다. 1982년 호주 재향군인회 발족에 참여했고 1989년엔 호주 한국전쟁참전유공자회 발족에 공헌했다. 한

국 정부로부터도 1969년 화랑무공훈장, 2013년 호국영웅기장을 받았다. 호주 내 한국인의 인권 옹호와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에도 앞장서 왔다.

캐나다 서부 향군 장민우 사무처장, 가평군 홍보대사 위촉

가평군, 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등 양국 우의증진 가교역할 기대

캐나다 서부 향군 장민우 사무처장이 가평군(군수 김성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장민우 사무처장과 가평군은 지난 2019년 캐나다 밴쿠버에 한국전 가평전투 참전비를 가평석으로 건립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그 이후 장 처장은 캐나다 서부지역에서 가평군이 외연을 확대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가평군은 캐나다군 가평전투 승전기념행사와 가평특산품 캐나다 시장 진출 및 랭리타운십 간 자매결연 추진 등 양국 간 친선과 우의증진에 많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처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캐나다에서 가평의 위상

김성기 가평군수로부터 기념품을 받고있는 장민우 사무처장(오른쪽)

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기 군수는 "캐나다 서부지구 다문화 커뮤니티와 교민사회에서 덕망 높고 영향력 있는 장민우 사무처장을 우리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평전투 기념 해외 참전비 건립에 10여 개의 가평 석을 지원해 왔다. 가평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1차 춘계공세 때인 1951년 4월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군 북면 계곡에서 영연방 제27여단과 중공군 제118사단 간에 치러진 2박 3일간의 전투로 영연방군이 대승했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1월21일 ~ 2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2월1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갖고 2021년 보훈사업에 대해 논의. 2월16일 강동, 강서, 관악, 용산, 송파 구회장 등 초임구회장 5명에 대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

양천구회 : 2월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군귀환용사 자택을 방문, 위로선물 전달.

성북구회 : 여성회는 2월4일 공명자 제8대 여성회장 선출.

강동구회 : 2월1일 향군회관에서 구청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향군 추진사업 협조 요청.

부산시 향군

진구회 : 2월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진구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

동래 연제구회 : 2월17일 동래구청을 방문, 호국보훈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받은 후 김우룡 동래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활동 및 운영방안 논의.

대구시 향군

중구회 : 2월4일 향군회관에서 회원들에게 떡국 판매수익금으로 마련한 설 명절선물 전달.

서구회 : 2월5일 신임 공동식 회장이 취임 인사 차 서구청과 의회를 방문, 회무 및 예산지원 관련 업무 협조.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2월4일(목) 향군회관에서 3월11일 실시예정인 개선총회를 위한 인천시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

경기도 향군

이천시회 : 여성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독거 6.25참전용사들을 방문 이천 쌀 10포를 전달하고 위로.

여주시회 : 2월16일 6.25 전쟁영웅 훈장 찾아주기에 적극 동참, 지난해 무공훈장 수훈자 6명에게 훈장을 찾아 준 공로로 육군본부로부터 감사장 받아. 1월29일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여주시 노인복지관장 감사패 받아. 2월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동 상가, 버스터미널 정류장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소독 실시. 2월16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여주대학교 안경공학과에서 원로회원 및 무공수훈자회원들에게 돋보기 안경 맞춤 봉사 실시.

수원시회 : 여성회는 2월9일 설 명절을 맞아 수원역 일대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 마스크 400장과 핫팩 200개를 나눠주며 방역수칙 준수 길거리 캠페인 전개.

강원도 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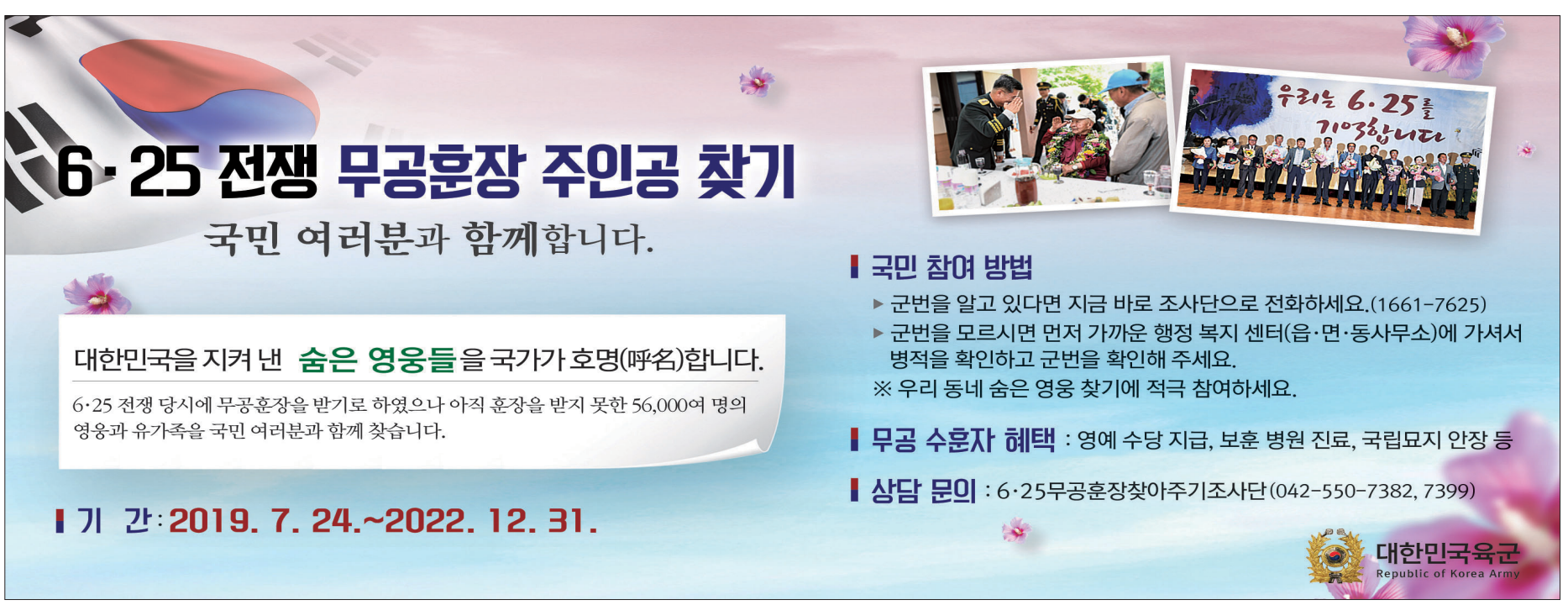
양양군회 : 1월28일 양양군청을 방문,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지역 인재육성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청년단은 2월5일 새해를 맞이하여 관내 아동보호시설 충북육아원을 방문, 이유식 마스터기 등 유아용품 지원. 여성회는 2월9일 개신동 배수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중구회 : 2월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유천동 주민센타와 보훈단체를 방문, 임원 및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한 떡국 떡 400kg를 국가 유공자 및 지역 소외 어르신들에게 전달.

보령시회 : 2월9일 관내 제8361부대 2대대를 찾아 노후된 사열대 현판 교체 보수 봉사활동 전개.

전라북도 향군

부안군회 : 여성회는 2월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인 은총의 집과 전북농아인협회 부안군지회를 방문,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

고창군회 : 2월2일 전라북도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회 업무 현안 논의.

정읍시회 : 1월29일 상교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상교동 예비군중대와 협력하여 상교동 향군 사무실 현판식 가져. 2월8일 정읍 정통시장인 샘골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 2월9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방위에 노고가 많은 상교동 예비군 중대를 방문,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으로 가습기(대용량 6리터) 증정.

완주군회 : 여성회는 2월5일 다문화 가족 설맞이 행사에 참여, 해당나라 전통음식과 우리의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어 전달. 2월11일 설 명절 연휴기간 완주4대대를 방문, 피자 20판을 전달하고 장병 위문.

익산시회 : 2월10일 설을 앞두고 향군회관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 참여자에게 생필품 전달.

남원시회 : 2월3일 향군회관에서 신임 남녀 회장단 상견례를 갖고 올해 주요업무 및 실천방안 토의.

전주시회 : 2월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농협 협조로 생계보조비 지급 대상자 등 20명에게 사랑의 쌀 전달 행사 가져. 2월8일 전주 백제치과와 향군할인가맹점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에게 진료비 우대 혜택.

군산시회 : 2월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극동사거리와 나운 주공시장, 향군회관 앞 대로변 등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전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광산구회 : 2월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떡대 나눔 봉사활동 실시.

강진군회 : 2월3일 설 명절을 맞아 강진 자비원에 과일, 화장지 등 생필품을 마련해 전달.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2월8일 설 명절 맞아 39사단 사령부를 방문, 국가안보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

창원 의창 성산구회 : 2월5일 읍 면 동 회장 간담회를 개최, 회 현안을 토의하고 설 명절 선물 전달.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여성회는 2월8일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애리원'을 방문, 생필품 전달을 방역 및 청소 봉사.

고성군회 : 2월2일 새해를 맞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향군회관 주차 공간 마련, 보훈가족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훈복지회관 건립 등을 건의. 2월4일 설 명절을 맞아 생계보조비 대상자 및 6.25참전유공자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2월8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거동이 불편한 무공수훈자 회원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하동군회 : 2월15일 육군 8%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 장병들과 예비군들의 노고 격려.

밀양시회 : 여성회는 2월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밀양시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월1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6. 25참전자 10가구를 대상으로 라면 나눔행사 실시.

통영시회 : 2월19일 해상순직 장병 위령제를 앞두고 위령탑 주변 청결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순국선열 추모행사 가져.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2월9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신임 이동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보훈 업무 관련 문화 확산 및 향군 업무 협조 방안 논의.

서귀포시회 : 2월5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업무 논의.

한일 예비역 장성 교류, 관계발전 도움

일본 무관단 성우회 예방, 극동지역 안보 논의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2월4일 일본 국방무관 공군대령 마즈모토 타까시 등 육 · 해 · 공 무관 3명을 맞이하여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극동지역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이종옥 회장은 "양측 간 교류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초석의 역할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작년 교류는 취소되었지만 올해에는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일 예비역 장성들 간의 교류가 미래 한일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현역 및 예비역간 군사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회와 일본 안전보장간화회 간 유대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기여를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종합사업본부, 한국생산성본부 · ㈜썸비스와 업무협약

제대군인 위한 '글로벌 온라인 리셀러 창업교육 과정' 개설

향군 종합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디지털 기반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2월17일 한국생산성본부(KPC), 썸비스(주)와 제대군인 창업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스타트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본회 종합사업본부, 한국생산성본부(KPC), 썸비스(주)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제대 장병 등 1천만 향군 회원을 위한 '글로벌 온라인 리셀러 창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대군인이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대기업 가전제품 대리점을 오픈할 수 있고 자신은 물론, 지인에까지 대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10만여 개의 국내 최저가 제품을 팔 수 있는 폐쇄 몰 형태의 복지 몰도 자신만의 쇼핑몰 형태로 오픈할 수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 까지 판로 개척을 도와줘 사업자가 글로벌 리셀러(판매자)로서 유통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자로서 직접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식대리점 개설을 위해 드는 교육비를 1금융권과 협조해 저금리 착한 대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이번 협약을 제대군인 창업프로그램을 넘어 민간 저변에 '디지털 창업 프랜차이즈'라는 디지털 뉴딜을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1월 26일 ~ '21년 2월 22일)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6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67만원)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77만원)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 (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성우회** : 3월11일 운영위원회의.
▲ **포병전우회** : 3월11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자연보호 활동. 3월31일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제18주년 창립기념행사.
▲ **갑종장교전우회** :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정기총회 및 비대면 회장선거.
▲ **백마고지참전전우회** : 3월23일 제기동사무소에서 정기총회.
▲ **정보동우회** : 3월24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 **공군전우회** : 3월24일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
▲ **재향여군연합회** : 3월25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헌병전우회** : 3월중 정기총회 예정.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28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 or.kr) 향군 할인 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 · 도 / 시 · 군 · 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신세계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92) 1566-9988 : 수술비우대 적용
- **나움내과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 네오타워빌딩2층) 031-928-5628 : 10~15%
- **성모편한내과**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30 우리프라자4층) 031-3203-1275 : 10%
- **추부의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6) 041-753-6566 : 진료비 10%

식당/음료

- **한마리정육식당**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번길 16) 031-821-1588 : 10%

기타

- **금성공업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11) 043-732-4444 : 10%
- **스위스안경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27-3) 043-733-7805 : 3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② 담양 금성산성'

삼국시대 축조, 적상산성·입암산성과 호남 3대 산성

왜구에 맞선 의병 본거지, 동학혁명군의 처절한 전투 현장

담양 금성산성은 연대봉과 시루봉, 철마봉 등 산봉우리를 잇는 능선을 따라 6,486m의 외성과 859m의 내성으로 이루어졌다. 금성산성의 축조 시기는 삼한이나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고 무주의 적상산성, 장성 입암산성과 함께 호남 3대 산성으로 불린다.

동서남북에 각각 4개의 성문이 있고 군량미 창고, 객사, 보국사 등 10여 동의 관아와 군사시설이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모두 불타버리고 90년대 복원된 보국문과 충용문을 제외하고 터만 남아있다.

금성산성은 험준한 지형에 축조한 요새로 조선시대 이항복은 "산성이 크고도 더욱 웅장해 평양성보다 더 우수하고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천년 세월 모진 풍파에 굴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있는 금성산성의 기세는 대륙을 휘감고 돌아간 만리장성과 당에서 고구려를 지켜낸 천리장성에는 못 미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왜구에 맞선 전라도 의병들의 본거지로, 갑오년 동학농민 혁명 때는 전봉준 녹두장군을 위시한 농민혁명군의 처절한 전투의 현장으로 과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수많은 호국영령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쓰러져간 수많은 민중들의 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산성을 둘러보는 코스는 충용문에서 동문 - 북문 - 서문 - 충용문으로 이어지는 일주 코스가 주 코스로 약 6.4km에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리고 가운데 숲길을 따라 서문까지는 약 1.8km, 북문까지 이어진 숲길은 약 2.0km, 동문까지는 약 1.5km로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도 있어 굳이 성곽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사계절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담양 금성산성은 남녀노소 큰 부담 없이 운동화에 일상복으로 충용문까지 오를 수 있으며 숲길을 거닐어 동자암과 보국사 터까지만 다녀와도 훌륭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전우여! 어디에 …

◆김재왕씨가 육군 32사 97연대, 1793부대 근무한 김규용 하사관을 찾습니다.
(김재왕 010-8784 -0820)

◆정주섭씨가 1980년 1월부터 1982년 4월까지 82통신대대(2군지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정주섭 010-5155-0062)

◆김동호씨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65경자대 868중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동식(경기도 광주), 김정태(충남 당진), 이만종(강원 춘천)씨를 찾습니다.
(김동호 010-9874-8624)

◆1977년 9월23일 입대하여 1980년 6월19일 제대한 채효석씨가 같이 근무했던 제9390부대 제3중대 한진섭(전남 광주), 남기석(경북 상주), 이신우(경기도 안양시)씨를 찾습니다.
(채효석 010-3465-3456)

◆황철원씨가 지금은 없어진 국군덕정병원(105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강택구, 김원형, 박구남, 심창규, 이선호, 이원재, 이흥회, 한성규씨 등 그리운 전우들을 찾습니다.
(황철원 010-2212-3666)

건강정보

정상 사회생활 힘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 낙인 없애고 '사회화' 돕는 것이 중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말한다.

증상

사고 후 침습적으로 반복되는 재경험, 사고와 관련된 자극의 회피, 사고와 관련된 인지나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과도각성과 교감신경 항진 관련 증상 등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사건과 관련된 꿈을 꾸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상이 지금 당장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플래시백(flashback)을 겪기도 한다.

외상과 관련된 행위나 생각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사고관련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해 지거나 비현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둔해지기도 한다.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된 후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면, 과다각성을 겪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원인

특정 외상 사건이 주요한 유발인자다. 과거에는 외상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신경전달물질 체계와 불안/공포와 관련된 뇌 부위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련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한 부분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신경전달물질(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내재성 오피오이드 등)이나 편도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 등의 다양한 뇌 부위의 이상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신경계의 과활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발병하지는 않은 것을 고려하면 외상 사건의 주관적 의미, 아동기의 외상 경험, 부족한 가족/사회적 지지체계, 유전적 취약성, 최근에 경험한 생활의 변화, 과도한 알콜 섭취 등의 심리 사회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진단 · 검사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와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정해진 진단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때 심리검사나 설문검사가 진단과 증상 평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아직 하나의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설문검사 등으로 확진을 하지는 못한다. 때로는 외상적 사건으로 유발된 뇌손상과 같은 신체 질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신체 질환을 구별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하기도 한다.

치료방법

치료의 첫 단계로 정서적 조절과 안정을 돕는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설명하고 환자의 반응이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한 뒤 치료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요인별로 대처 방법을 함께 찾아나간다.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감각을 이용해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착지연습, 상징적인 마음의 이미지를 이용해 불편한 생각, 감정, 감각을 조절하는 봉인연습 등을 같이 하게 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안정화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다. 안정화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출치료, 인지처리치료를 포함한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역동적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와 같은 치료를 해볼 수 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약물 등 다양한 약물들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나 자살이나 폭력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학적 치료 못지않게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재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보정세보고/ 강력한 한미동맹, 연합훈련으로 지켜나가야

한미동맹, 한반도를 지탱해 온 안보의 중심축…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필요

지난 겨울 각 부대들은 코로나19와 강추위에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이 '이 정도 추위쯤이야...완전작전 빈틈없다', '과감한 혁신 훈련'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한다는 군의 존재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이처럼 우리 군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의 실전성을 배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놓고 대북정책 등과 연계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한 미간 온도차가 거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간 간극이 발생한 바도 있다. 군대의 존재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은 유사시 한반도에 발발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 훈련이다. 그런데 매년 두 차례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직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이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화해 분위기와 미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실병력 동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안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연습(CPX)을 실시해 왔다. 2019년부터는 키리졸브(KR) · 독수리훈련(FE) ·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폐지되거나 축소 · 대체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대급 이상 한미훈련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여단급 이상으로 실시되었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대규모 연합훈련 공군훈련인 '맥스선더', '비질런트 에이스'도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이 필수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 우방과의 동맹과 실전적 연합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이처럼 훈련이 축소 · 폐지되어 가게 된 것은 분명 아쉬운 면이 있다.

연합훈련은 동맹의 실체

지난 1월 초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한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1월27일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시행 방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금년도 3월 연합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 연습이며 운용적인 묘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되어간다"며 잇따른 연합훈련 취소와 축소를 우려하고 "야외 기동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방위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서욱 장관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훈련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즉각 대응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월 29일 트럼프 정부에서 중지 혹은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이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고 한 바 있다.

'레디 투 파잇 투나잇'(Ready to Fight tonight) 정신으로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도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2월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유연한 해법'과 '훈련연기, 훈련축소' 주장에 대해 "준비태세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틸럴리 장군은 "한국민의 억지력과 안보는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의해 제공되고 준비태세는 훈련되고 준비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다. 바웰 벨 전 연합사령관은 "지난 2년간 변화된 형태로 실시되어 온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어느 정도 낮췄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북한의 군사적 야심을 계속 저지하는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셔먼 장군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휴전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또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유연한 해법'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훈련 취소를 희망한다는 표현으로 이같은 양보는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만 훼손시킬 뿐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취소, 연기, 축소했지만 어떤 대가도 얻지 못했다"면서 "계속 양보한다면 한국의 안보만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4일 오전 한미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역내 평화 ·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 · 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진전됐고,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합작계에 의해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수단으로써 세계 최고의 동맹관계로 인정받아 왔다. 우리 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모토인 '레디 투 파잇 투나잇'(Ready to Fight tonight · 상시전투태세)을 재확인하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추가적인 관계 악화 위험은 줄인 채 훈련을 벌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연합훈련과 관련한 논란의 초점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들어줘야 하는 정치적 요인과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한미연합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군사적 요인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라는 정치적 판단과 군사적 훈련의 필요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군 존재목적, 전쟁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것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 합동전력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어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한미 상호 작전운용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월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이임 전 참석한 포럼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전방위적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큰 틀 속에서 훈련이 확장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연합훈련은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훈련만이 갖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수단으로 훈련 축소나 연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군대의 존재목적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서도 연합훈련 조정은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든가, "북핵 동결, 더 나아가 비핵화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해 연합훈련 조정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됐는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간다는 평가가 있다.

지나친 북한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수단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합훈련에 차질이 생겨 계획된 검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의 로드맵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우려 속에서도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제한요소와 어려움이 산재한 가운데 훈련시행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올바른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실전과 같은 실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장병들의 피를 부른다"는 전장의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 흔들림없이 계속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국방부는 지난 1월 21일 청와대에서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토록 명료한 표현들이 말 그대로 수사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군의 전투능력은 떨어진다.

매년 주한미군 장교의 60%, 한국군 장교의 50%가 자리를 옮기는데 지난 2년간 훈련의 축소 및 폐지로 정식 연합훈련 경험자가 거의 없어 군의 전시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군 지휘관과 참모들은 전술토의를 통해 상호 전술식견을 교환하고 증대시킬 뿐 아니라 연합사령부 지휘관의 의도와 개념을 공유한다. 주기적인 훈련을 놓치면 한미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와 새로운 군사지식 습득, 상호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

동맹관계는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북 군사억지태세에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염려에도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 유예하면서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명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 김정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특히 안보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합훈련이 한미 상호간 갈등요인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한미연합 실제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동맹으로서 협조와 세밀한 조율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지탱해 온 안보의 중심축이다.

한 미간 굳건한 신뢰와 협의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돼야 전시작전권 전환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 여러 변수들 때문에 야외실기동훈련이 제외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으로만 진행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제한과 다양한 문제 속에서 축소된 형태로 연습한다 해도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어렵게 실시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기반이 되어 향후 확대된 연합훈련이 이루어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호국안보국〉